

사진가사의
만남

현대 미용과 만난 고전의 美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 풍성하게 뿜어진 가체가 올려졌습니다. 화려한 장신구까지 가세해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한 고전 머리에 빛을 더 합니다.

지난 23일 광주 서구 빛고을 체육관에서는 광주시장배미용경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이들의 열기로 체육관은 뜨겁게 달구어 졌습니다.

미용인들의 축제 현장은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흥미진진한 축제의 현상이 됐습니다. 미용하면 일반 사람들은 컷, 파머만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날 체육관에서는 각종 컷은 물론 업 스타일, 파머, 고전 헤어까지 갖가지 헤어 스타일이 총 출동 했습니다. 능숙한 손씨로 머리를 매만지는 이들과 달리 한 쪽에서는 피부 마사지 솜씨를 발휘하느라 사람들의 등과 다리를 마사지 하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색색의 매니큐어를 가지고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네일케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궁무진한 미용의 세계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미용의 세계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사랑방 노릇을 톡톡히 했던 동네 미용실은 물론 화려한 조명과 최신 미용장비를 갖춘 거대한 미용실들도 거리에 즐비합니다.

광주시에만 3천 여개가 넘는 미용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피부 마사지와 네일 케어도 요즘 여성들에게는 친숙한 이름이 됐습니다. 고운 피부와 화려한 머리로 치장한 미인들의 세상입니다.

물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곁에 보이는 미(美)만큼 내면의 미도 아름다운 미인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미소가 현대 미용기술과 만나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리빙 센스

하얀 피부 만들기 ②

◇수정화장은 파우더로!
화장을 수정할 때는 투여이 케이크보다는 파우더를 선택하는 게 좋다. 파우더의 미세한 가루 입자가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름종이로 눌러 피지를 제거한 뒤 파우더를 톡톡 덧바른다.

◇꼼꼼한 제품 선택!
브랜드마다 화이트닝 주력 성분과 추구하는 효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른다. 알부틴과 비타민 C, 산백과 추출물 등은 모두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며 주근깨나 어두운 점을 없애 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일반 화장품에 많이 함유되지 않는 성분으므로 자극 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을 사용해본다.

◇각질 제거
각질은 그 자체만으로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화이트닝 제품의 흡수까지 방해한다. 주기적으로 스크럽제나 팩, 세안 솔을 이용해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맑고 화사해 진다.

오늘의 유머

■도인의 대담
도를 닦고 있는 사람 앞으로 굉장한 미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본 도인이 감탄사를 내뿜으면서 말했다.
“오! 저런 미인을 본 적이 있을까? 깊고 검은 눈동자, 풍만한 가슴, 가는 허리, 정말 멋진 군머져!”
도인의 얘기를 들은 주인이 도인을 쳐다보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도를 닦는 사람도 여자를 탐합니까?”
그러자 도인이 잠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보십시오, 단식한다고 메뉴를 보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멋진 첫날 밤
어떤 남자가 결혼식을 끝내고 신부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 첫날 밤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남자는 잠잘 생각은 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남자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기를 반복했다.
이 모습을 본 신부가 조심스레 남자에게 다가 물어보았다.
“잠은 안 잘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채로 신부에게 말했다.
“그게 말이야, 친구들이 오늘받처럼 멋진 밤은 다시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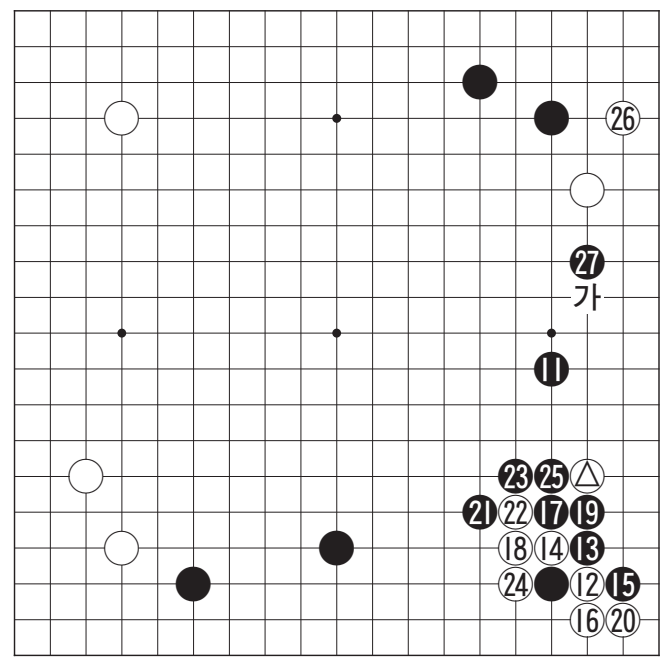
■대입학원 화장실 낙서
내 사전엔 재수란 말이 없다. (고 3)
설마, 설마 했지만 결국 이곳에 다시 왔다. (재수생)

상상조차 못했다. (삼수생)
자식들~ 나도 작년에 그랬었지. (사수생)
이놈들아! 난 너네들 만난 자식이 있어! (장수생)

■고구마의 질투
단짝 친구인 감자와 고구마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 앞쪽에 찹쌀떡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찹쌀떡을 본 감자가 부러운 목소리로 고구마에게 말했다.
“아~ 찹쌀떡이다. 정말 예쁘지 않나?”
고구마가 퉁퉁 거리며 대답했다.
“예쁘긴 뭐가 예뻐!”
감자가 찹쌀떡을 쳐다보며 다시 말했다.
“저것봐~ 뽕뽕송송하고 피부도 하얗잖아!”
그 때 둘의 대화를 들은 찹쌀떡이 창피해서 자리를 피했다. 그런데 이때 찹쌀떡에 묻어 있던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고구마가 말했다.
“거봐~ 저거 화장발이지?”

■웃기는 집안
경찰이 교통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세우며 말했다.
“실례하겠습니다. 방금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운전자도 창밖으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면서 말했다.
“좀 봐주세요. 낮에 술을 마셨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음주운전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한 마디 거들며 나섰다.
“경찰관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이가 아직 면허증이 없어서 그래요.”
경찰이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그럼 면허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뒷좌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한 마디 했다.
“가 봐라~ 훔친 차는 얼마 못 간다고 그랬잖아!”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아마최강부 결승



백 ㉔로 느슨하게 협공한 수가 이 모양에서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이 수로 '참고도 1'의 백 1로 걸쳐가는 것은 흑 2의 협공이 나 정석이라고 해서 만드는 아니다. 정석이라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손익이 항상 달라지기 마련이다.

백 26이 선계성 6단과 같은 수로 이 수로는 바로 '가'에 벌릴 수도 있었다. 선 6단은 은근히 '참고도 2'의 흑 1로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그때 2로 벌리겠다는 것인데 심재욱 6단이 즉각 27로 협공하여 국면이 급박해지고 있다.

흑 11로 협공하면 여러가지 변화가 있으나 25까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정석이다. 그러

백 ㉔로 느슨하게 협공한 수가 이 모양에서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이 수로 '참고도 1'의 백 1로 걸쳐가는 것은 흑 2의 협공이 나 정석이라고 해서 만드는 아니다. 정석이라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손익이 항상 달라지기 마련이다.

백 26이 선계성 6단과 같은 수로 이 수로는 바로 '가'에 벌릴 수도 있었다. 선 6단은 은근히 '참고도 2'의 흑 1로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그때 2로 벌리겠다는 것인데 심재욱 6단이 즉각 27로 협공하여 국면이 급박해지고 있다.

흑 11로 협공하면 여러가지 변화가 있으나 25까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정석이다. 그러

〈참고도1〉 〈참고도2〉

〈요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0일 (음 9월 2일 癸酉)

子	36년생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을 차리면 소화에 그친다. 48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60년생 협력자가 나타난다. 72년생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84년생 놀라운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21, 25
丑	37년생 화형전집 마무리가 좋으니 제물도 연으리라. 49년생 새로운 일을 모색하라. 61년생 가정 직장 자신사이에 불평사가 생긴다. 73년생 새로운 문서에 알맞이 발송할 수도 있다. 85년생 말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4, 38
寅	38년생 처음은 어려우나 나중은 쉬워진다. 50년생 멧을 내고 나가보라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 62년생 지난 일이 과몰입 수 있으니 옛 일을 살펴보라. 74년생 욕심이 부질없다 변화를 삼가 하라. 행운의 숫자: 17, 29
卯	39년생 친할수록 조심하라 우정이 깨질 수도 있다. 51년생 눈물이 보일 수니 조심해서 행동하라. 63년생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수다. 75년생 미운사람이 보이면 말조심을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3, 45
辰	40년생 뜻하는 일은 이루어지나 속독은 작다. 52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64년생 예언이 생기지만 마음에는 안 든다. 76년생 작은 병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09, 36
巳	41년생 분수를 지키면 큰 화도 비껴간다. 53년생 욕심을 버리려 큰 득은 없다. 65년생 인생행로에 변화수가 보인다. 77년생 여유 있게 생각하라 계획은 꼭 성사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07, 40
午	42년생 고통이 따를 수도 있으니 심상을 굳건히 하라. 54년생 미리 준비하면 실마리가 보인다. 66년생 힘의 안배를 조절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78년생 친절한 집근자의 말은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8, 32
未	43년생 진퇴를 분명히 하라 득과 실이 교차된다. 55년생 자녀의 고충이 보이나 대화로 풀리리라. 67년생 불언이면 이별수도 있으니 대화로써 해결하라. 79년생 형제 부모가 두루나 모든 일이 평온하다. 행운의 숫자: 04, 42
申	44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이 풀리리라. 56년생 승리를 영위하면 결과는 없다. 68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험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80년생 큰일은 아니니 열고 싶은 일이 생기니 마음껏 열어라. 행운의 숫자: 06, 28
酉	45년생 구슬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57년생 망진실이 열려오니 지난 일을 회개하라. 69년생 타인의 입으로 곤든 말이 무너져니 주변인에게 배풀어라. 81년생 잔고 끝에 약속 나온다. 행운의 숫자: 02, 43
戌	46년생 구슬수가 생겨나니 명에가 걱정된다. 58년생 인생의 경향이 후반전의 전라니 지혜롭게 진행하라. 70년생 아들과 많은 대화 필요하니 기회를 만들라. 82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니 옛정을 되살려라. 행운의 숫자: 05, 26
亥	47년생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살펴보라. 59년생 남편이 고민한다. 곁에서 살펴보라. 71년생 친구의 지혜를 빌리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83년생 젊음보다 경험이 우선이다. 신배의 도움을 청하라. 행운의 숫자: 01, 3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56> 오하오우 니혼고 <1156> 니하오 풍구워 <233> 한자 이야기 <873>

That's for sure
그렇고 말고

A : What's Peter in trouble for?
B : He told me one thing and told his mom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 : Sounds like peter had better get his story straight.
B : That's for sure.

A : 무엇 때문에 피터가 곤경에 처한거지?
B : 그 녀석이 나한테 한 말을 자기 어머니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말했거든.
A : 듣고 보니, 피터는 끈이곧대로 말씀을 드렸어야 좋을 것인데.
B : 그렇고 말고.

* what ~for? =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 for sure = definitely : undoubtedly.
* in trouble = 어려움에 처한
* Sounds like ~ = 듣고 보니 ~하구나.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誰だか知(し)りません。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A : 吉村(よしむら)さんと話(はな)しをしている人(ひと)は誰(だれ)ですか。
B : そうですね。誰(だ)か知(し)りません。
A : 花子(はなこ)さんはどの方(かた)ですか。
B : 白(しろ)いシャツを着(き)て、めがねをかけた方(かた)です。

A : 요시무라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B : 글썄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A : 하나코씨는 어느 분입니까?
B : 흰 셔츠를 입고, 안경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知(し)る : 알다
話(はな)し : 이야기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这是谁的家?
여기는 누구의 집입니까?

A : 这是谁的家?
zhèshì shéi de jiā
저는 세어던 집어
B : 这是我的家。
zhèshì wǒ de jiā
저는 피터 집어
A : 里边有什么?
lǐbian yǒu shénme
리비엔 유우 셴메
B : 有客厅, 有厨房。
yǒu kètīng yǒu chúfáng
유우 쉐팅 유우 처방

A : 여기는 누구의 집입니까?
B : 여기는 저의 집입니다.
A :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B : 안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里边 [lǐbian] 안, 안쪽
厨房 [chúfáng] 주방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棟梁(동량)
마룻대 등, 대들보랑

동량(棟梁)은 마룻대와 대들보라는 뜻이다. 마룻대는 서까래의 밑받침으로 지붕의 정상에서 중앙을 횡으로 버티주는 가로 막대이다. 이 마룻대가 옆으로 뻗어 올라 집의 풍체를 한껏 웅장하게 해 주는 것이 용마루이다. 들보는 건물의 앞뒤 기둥을 연결하여 지붕의 하중을 지탱한다. 여러 개의 들보 중에서 가장 굵고 힘을 쓰는 것을 대들보라고 한다. 따라서 모두 집과 지붕을 떠받치는 중요한 재료가기 때문에 주석(柱石)과 마찬가지로 쓰인다.

동량이란 말은 중국 춘추시대 월(越)왕 구천(句踐)의 부인 예옹(夷庸)이 대부 문종(文種)을 평가한 말에서 유래한다. 구천의 부인은 구천에게 "대부 문종은 나라의 동량(棟梁)이요, 임금의 조아(爪牙)"라고 하였다.(吳越春秋, 句踐入臣外傳)

여기서 '조아'란 범의 날카로운 발톱과 어금니처럼 임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신하란 뜻이고, '동량'은 집의 마룻대와 대들보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하를 의미한다. 현재는 한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요직, 또는 요직에 있는 사람을 비유하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동량지재(棟梁之材)', '주석지신(柱石之臣)'이라고 칭한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